



NEW WORDS ☐ ☐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couple	커플	2. fart	방귀 꺾다	3. brilliant	훌륭한, 눈부신
<input type="checkbox"/>	4. appendectomy	맹장수술	5. forgetful	잘 잊어버리는	6. anesthesia	마취
<input type="checkbox"/>	7. operate	수술하다	8. complete	완수하다	9. tweezers	핀셋
<input type="checkbox"/>	10. patient	환자	11. inevitably	어쩔 수 없이	12. just then	바로 그때

NEW EXPRESSIONS ☐ ☐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a very forgetful person	건강증이 심한 사람	2. a shot of anesthesia	마취주사
<input type="checkbox"/>	3. a pair of scissors	가위	4. in the patient's stomach	환자의 뱃속에
<input type="checkbox"/>	5. pulled out ~	~을 꺼냈다	6. Wouldn't it be better ~?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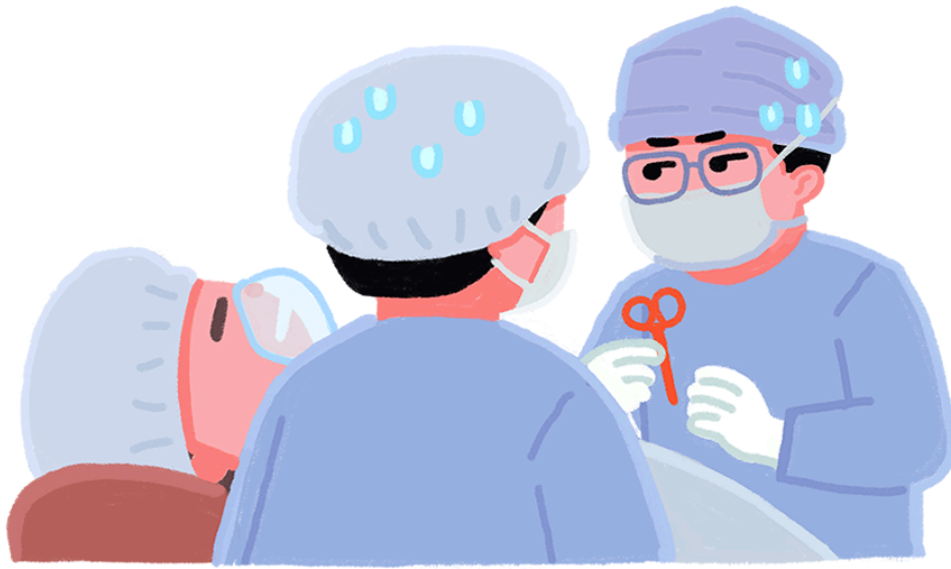
Listening 1 ☐



A couple were drinking coffee at a coffee shop. Then the woman suddenly wanted to fart. She thought for a moment. 'I've got an idea. I fart the moment I should shout " I love you! " loudly to this man.' She thought it was a brilliant idea. Finally, the woman hugged the man and said loudly, " I love you! " The moment the woman thought she was successful, the man said, " What? I couldn't hear you because of your fart. Could you say that again? "

0:00 / 0:38

Listening 2 ☐



A young man went to the hospital for an appendectomy. The doctor was a very forgetful person. He gave him a shot of anesthesia, and then he began to operate. He completed the operation successfully, but he realized that he left a pair of tweezers in the patient's stomach. He opened the patient's stomach again. This time he left a pair of scissors in. Inevitably he opened the patient's stomach again and pulled out the scissors. Just then the patient woke up from the anesthesia. The patient, who knew about it, told the doctor, "Wouldn't it be better to put a zipper on my stomach?"

0:00 / 0:46

해석

Listening 1

한 커플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그 여자는 갑자기 방귀를 뀌고 싶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방귀를 뀌는 순간에 외쳐야 해. 이 남자에게 큰 소리로 "사랑해" 라고' 그녀는 그것이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껴안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여자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남자는 말했다. "뭐라고? 네 방귀 때문에 네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 다시 한 번 말해줄래?"

Listening 2

한 젊은 남자가 맹장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그 의사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에게 마취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시작했다. 그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그는 환자의 배속에 핀셋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환자의 배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그는 배속에 가위를 남겨두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환자의 배를 다시 열고 가위를 꺼냈다. 바로 그때 그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났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환자는 의사에게 말했다, "내 배에 지퍼를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